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54호)

○ '96. 5. 22

○ 총무재무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6. 5. 11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96. 5. 13

다. 상 정 일 자 : '96. 5. 22

라. 위원회 개최 회수 : 제53회 임시회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회의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박우원)

가. 제안이유

-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자치구 기구·인력 보강지침이 시달('96. 5. 2)되어 자치구에 가스계 및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 가스안전 관리기능 및 현장위주의 안전지도·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소요인력 6명에 대하여 내무부로 부터 정원승인 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의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34명에서 940명으로 6명을 순증함. (안 제2조 제1호)

- 산출내역

- 산업과에 가스계 신설 : 6급 1, 7급 1 증원
- 민방위과에 안전지도계 신설 : 6급 1, 7급이하 3증원

다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조(총정원의 책정) ①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 (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책정한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충빈)

1. 검토내용

-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 6명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검토결과

- 산업과 가스계 및 민방위과 (조례개정되면 민방위 재난관리과)안전지도계 신설에 필요한 6명은 내무부장관의 승인등 절차를 이행한 것이므로 타당함.
- 가스계 2명, 안전지도계 4명등 구의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934명에서 940명으로 증원하는 것임.
- 증원 6명분 인건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정원변동 현황

(단위 : 명)

기 준 일	계	구 본 청	구 의 회 사 무 국	직속기관 (보건소)	동	비 고
'95. 2. 21	1,367	893	26	73	375	직제기구 개편
'95. 5. 30	1,368	894 (1)	26	73	375	지방정무직
'95. 8. 31	1,403	929 (35)	26	73	375	여권과 35명 초과 정원
'95.11. 17	1,412	933 (4)	26	78 (5)	375	전임전문직 의무(5) 교통(4)
'96. 1. 29	1,413	934 (1)	26	78	375	양곡직 국비 →지방비
'96. 5. 11	1,419	940 (6)	26	78	375	가스계(2) 안전지도계(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산업과 가스계는 시민국 소관 이므로 시민국장이나 산업과장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산업과장이 참석토록 조치)
- 오늘날 추세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안전분야에 증원을 하고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스계 2명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안전지도계는 어떻게 편제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가스관리기능보강지침이 5월에 시달되었고 92년도 부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95년 6월 대구가스폭발로 95년 7월 적극 반영 하여 조직개편토록 되었으며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이 5월에 시달 되었는데 대통령 지시에 의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 안전한 나라를 추구하고 하기 위해 민방위조직이 재난관리 조직으로 확대개편 되었음.
즉 시·도는 민방위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자치구에게 안전관리계가 신설되는 것임.
- 가스안전계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도시가스 사용가구 8만등 LPG, 고압가스 사용가구가 많음, 연료계의 업무중 가스관리업무를 분리, 가스계를 신설, 가스관련공사의 신고 수리와 가스안전관리, LPG가스관리, 시공업자 31개소지도, 도시가스보급 등임.
- 안전지도계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예방은 안전지도계이고 재난은 재난관리계 소관이며 기능별로 안전지도를 전담하고 총괄하는 부서임.
- 연료계에서 가스시공시 감독소홀로 하청 업체가 수요에 공급이 달려 특권 의식을 갖고 폭리와 횡포를 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의 선납으로 발주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감독부서의 견해는? 사전감독이 되어야 하지 사후지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가스기술자격자 기사 7급, 기능직 10등급 1명이 있었으나 자체에 인력이 보강되게 되어 있음. 공사시행은 가스시공사와 사인간의 계약관계이므로 관여하기가 곤란.

(의사진행 발언 — 의제의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야)

(의사진행 발언 — 회의규칙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어야)

- 오늘아침 대형가스사고 난것을 알고 있는가? → 알고 있음.
- 산업과장은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왜" 필요한가를 위해 담당과장이 지적 후 늦게온 이유와 필요시는 상급 자치단체 지시 보다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일이 있는지, 국과장의 노력은? → 늦게와서 죄송함, 중소기업 융자금심의를 위해 자료작성을 위해 늦게 참석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당초 가스계가 2년여 존속되다가 94년 2월 연료계에 통합되었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신설이 필요하게 됨.
- 우리구에서는 사고없이 안심할 수 있는 구가 되게 해야 할것 아닌가? →가스계 신설을 계기로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사고없는 서초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인건비 추가소요액은? → 6명분 인건비는 1억 8백만원 정도임.
- 인원충원은 제대로 된다고 보는가? →가스는 기술이 요하므로 행정적 의무 관리이며 가스회사, 시공회사등에서 책임지고 기술감독 하고, 구에서는 행정지도 등을 철저히 하겠음.
- 가스계의 경우 면허없는 직원보다는 면허자로 우선채용 할 의의는? 안전지도 계도 행정직보다는 자격면허가 있는 자로 충원해야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1계는 6명이 바람직하나 인원 충원이 어렵고 순수관리도 행정직이 기술감독은 화공,토목등 직으로 하여 수요에 충족하겠음.
- 가스안전사고의 대책수립은 되어 있는지? →있으며 별도 제출
- 사무분장표를 먼저 개정해야 하는것 아닌가? →규칙으로 되어 있으며 구청장이 정하면 될것 임.
- 인력보강지침상과 조례안이 상이한 이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사고없는 서초구가 될 수 있다고 확답할 수 있으며,

- 순증으로 증원만하기 보다는 기존인력으로 상계할 계획은?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며 상계처리 보다는 순증이 되어야 하겠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가. 찬성 : 필요불가피한 인력이라고 보며 국가적 사항이고 사고없는 지역을 위하여 필수요원이라고 생각되므로 증원하여야 함.

나. 반대 :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분구될 때 인력이 과소책정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므로 현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증원은 반대함.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나. 수정 이유

다. 수정 주요골자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8, 반대 1, 기권 1)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가. 예산조치

나. 연석회의 · 공청회등

10. 체계자구 정리내용 : 없음